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 “모든일 함이 없이 해야 대자유인 되죠”

### 안팎 공한 이치 알고 싶어요

스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항상 감사함을 느끼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스님께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스님께서 제게 내려주신 불명이 용광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의 지혜 그곳은 간장종지 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간장종지 자체도 고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용광이 될 것을 굳게 믿으며 몇 가지 어리석은 질문을 올리고자 합니다.

안팎이 공하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조금씩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여전히 고정된 나가 있고 고정된 너가 있어 괴로울 때도 많습니. 어떻게 하면 안팎이 공한 이치를 뱉을 수 있을지 체득할 수 있을지 먼저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했듯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공한 줄을 안다면' 하는 소리는 과거도 지금 이런 때가 있었도 미래에도 이런 때가 있을 거고 현재에도 이런 때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삼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라는 뜻입니다. 한데 그 하나 마저도 공했다. 그 공한 도리에서 우리도 역시 공해서 살고 있다. 공했다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우리가 하나 하나 해나가는 게 그대로 공한 것이다. 함이 없이 하는 것이다 라는 거. 이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해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대자유인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항상 이런 얘기하죠. '아버지!' 하면 아버지 노릇을 자연적으로 해준다구요. 아들을 부르면 아들 노릇을 해주고 '여보' 하면 남편 노릇을 해주고 모든 역할을 그렇게 자연적으로 해나가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연적으로 해나가고 있으면서도 그걸 몰라서 때때 따라서는 마음으로 자기가 고민하는 거죠. 말이 많으면 실천을 옮기지 못하고 말이 적으면 실천을 옮길 수 있다 이런 말 있죠. 그랬듯이 마음 속으로 자주 편안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무조건 편안하게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 말 한마디도 없이 그 도리를 알 수 있을 겁니다.

### 수행의 잘못된 점 지적을...

스님께서서는 저희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때때로 시간이 나면 혹은 일부

러 시간을 내서 조용히 앉아서 '주인공 너만이 너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잖아. 너만이 내면의 모든 이치를 깨달게 할 수 있잖아' 하고 두들기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을 한다는 대로 해왔습니다만 아직은 지혜

내가 먹는게 아니고  
내가 보는게 아니고  
내가 듣는게 아니고  
모든 게 내가 아니라  
오직 근본이 합니다

의 문이 활짝 열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깨우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잘못되고 잘 되고가 없고 악도 선도 없어요. 잘못된 거 잘못된 것이 없어요. 그 없는 도리를 안다면 전부 내가 공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세상살이를 편안하게 할 수 있겠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말없이 말을 하고 함 없이 함을 하고 이렇게 지낼 수가 있나, 이런 말이지.

그 말을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산다는 것이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함도 없구요. 한다는 것도 없고 그냥 흘러가듯이 그대로, 바람이 불듯이 구름이 떠다니듯이 그대로 그렇게 하고 가는 겁니다. 어느편가는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 알게 되겠죠. 지금 걸음을 걸다가 멈춰지는 건 걸음이 아니니깐요. 세상살이가 다 그래요. 할나할나 그냥 걸어가는 거지 멈춰서 쉬는 자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 도리를 알면은 그냥 될 수 있다.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옴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지.

### 숨 나오기전에 녹이려면...

예, 알겠습니다. 이 공부를 하고 부터는 저 자신의 여러 가지 결점이



그림 · 최주현

## 내가 공한걸 알면 물 흐르듯 살수있어 인과 해결하려면 둘 아닌 도리 알아야

나 과거에 묻은 숨이 나오는 것을 전보다 조금 쉽게 알아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것을 스님 가르침대로 열심히 제 자리에 돌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묻은 숨이 하도 두렵고 질어서 정말 스님 말씀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밖으로 나온 것을 제 자리에 돌려놓는 것은 스님의 가르침인데 그 숨이 나 이런 것들이 밖으로 표출되기 전에, 나오기 전에 있는 그 상태에서 원천적으로 녹이는 같은 없는 것인지 그 점을 스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나오기 전에 돌려놓으려고 애쓰지 말고요 내가 살아가는 데에 딱치는 모든 걸 하나로 통글려서 생각하세요. 모든 것을요. 말겨울 때도 이런 일이

생기지 말라, 저런 일이 생기지 말라 이러고 놓는 게 아니죠. 놓을 때에 그런 사연이 모두 쉬게끔 '너만이 쉬게 할 수 있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놓아야죠. 자기의 요량이에요. 그것도, 길을 갈 때도 이쪽으로 가는 사람도 저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하면 빨리 가나 이렇게 생각 마시고 더디든 빠른 상관없이 그냥 거길 가듯이 말입니다.

### 놓는방법 개인따라 다른지요

감사합니다. 스님, 놓는 방법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스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예를 들어서 물에 병이 낫을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너만이 병을 낫게 할 수 있잖아' 하고 관하라고 하신 적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죽이든 살리든 너 알아서 해라

고 하신 적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집을 짓는 것도 법 안 짓는 것도 법이 나 지을 만 하면 짓고 안 지을 만하면 짓지 말고'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풀어서 저희들에게 법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법우님들과 토론했을 해본 결과 저희가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하면 첫 번째, 이 공부를 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는 되는 방향으로 '너만이 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해야 재미도 보고 힘도 얻을 것이고,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른 다음에는 그것마저 놓아야 하니까 '죽이는 것도 너 살리는 것도 너, 너 알아서 해라'는 단계가 돼야 될 거 같고, 그런 단계를 훨씬 뛰어넘어서 큰스님처럼 자유자재한 경지에 이르르면 '필요하면 집을 짓고 필요 없으면 안 짓고, 이렇게. 그때는 아무 것도 안 걸리는 상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세가지의 가르침이 결국은 스님께서 저희들에게 법문을 하실 때에는 저희들의 근기가 워낙 다양해서 어떤 특징인을 지칭해서 법문을 하실 수 없었기 때문일 거 같아서 다 적용이 돼야 될 것이 아닌가 저

합니다. 떠나지 않고, 그 수없이 해나가는 큰 거든 작은 거든 다 잘 살펴볼 보고 있는데 단지 자기가 볼보고 있다는 거를 모르는 게 문제죠. 그것을 알고 간다면 고통이 아니죠. 완벽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방편으로써 그렇게 길을 걸기도 하구요. 손을 잡아줄기도 하구요. 그런 경우가 많죠.

### 정신병·암에 걸리는 사연

감사합니다. 스님, 이번에는 심성 과학 연구와 관련하여 몇 가지 힌트를 얻기 위해서 스님께 질문을 계속해서 올리고자 합니다. 정신병이라든지 각종의 암 같은 것은 현대의 현대의학 수준으로는 난치 내지는 불치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들에게 가르쳐주시기를 암이건 정신병이건 간에 과거에 인과성 유전성 이런 영향이 많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대의학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암 같은 경우도 정상세포의 분화를 억제하는 유전자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게 지금 많이 밝혀져 있고, 정신 분열증 같은 것도 이 신경 전달 물질을 관여하는 어떤 유전자 결합으로 지금 그쪽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계성이라든지 과거의 인과성이 원인이 많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스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또 스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 모든 인간이 과거 미생물에서부터 인간이 되기까지 수억겁을 거치면서 서로 먹고 먹고와 찌어먹고 찌어먹고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누구든지 다 과거 생애에 수억겁을 두고 서로 인과를 주고 받았을 텐데 하필 정신병이나 또 암에 걸린 사람들은 왜 유난히 그분들만 그런 병에 걸리게 됐는지 또 저희가 알지 못하는 무슨 깊은 사연이 있는 건지 그걸 스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그 사연이 새롭새롭이 많죠. 자기 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모두가 일어나는 거니까요. 그러니 그것을 없애고 풀 아니게 할려면 풀 아니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요즘 외국이나 여기 한국이나 하하튼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철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동 가능

하며 개인 불지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칭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짧은 이야기 · 긴 깨달음

작은 이야기 속에서 큰 깨달음을 얻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여기, 자신있게 권할 수 있는 3권의 책이 있습니다.

- 제1권 \* 행복의 문을 여는 이야기
- 제2권 \* 사랑의 꽃을 피우는 이야기
- 제3권 \* 수행의 강을 건너는 이야기

행복·사랑·수행·지혜·죽음이라는

삶의 다섯 가지 주제를,

불경(佛經)과 고서(古書)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보배로운 이야기들을 통해 새로이 조명해 봅니다.

'바리만 봐도 복이 오는' 아름답고 귀한 변상도(變相圖)와 함께

이야기 하나하나에 깃든 참된 의미를 되새겨 보노라면,

'하나뿐인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색시리즈(전5권)

제4권(하얀책) 『지혜의 길로 이끄는 이야기』가 곧이어 출간됩니다

제5권(까만책) 『죽음의 재를 태우는 이야기』



구미레 역을  
200쪽 내외  
작권 4,500원

법부시를 원하시면 출판사로 연락 주십시오. 함인택을 드립니다. 도서 출판 한세 전화 02)3219-6441 팩스 02)653-4611

### 새로운 형태의 황토방 탄생!



· 피라미트 이글루형 황토방 규격  
표준형 : 49m<sup>2</sup>

- ①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를 접목시킨 새로운 형태의 황토방
- ② 황토방을 순수 황토만을 사용한 이글루형으로 시공함으로써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내부공간
- ③ 전통방식의 구들시공으로 황토의 장점을 최대화
- ④ 정신 및 신체건강을 위한 최첨단의 황토방 \* 황토주머니시공 및 황토 흙벽돌 판매

### 대륙건축 황토방 사업부

대표 이성우

경기도 용인시 마평동 530-3

TEL : 0335-336-6563

FAX : 0335-338-8923

H.P : 011-9680-5055

### 祝 創宗 六十八周年

初代 宗正 金慧宣 大宗師

第二代 宗正 金惠皓 大宗師

第三代 宗正 崔大植 大宗師

第四代 宗正 金慧潤 大宗師

元老 院長 朴鍾和

總務 院長 金光泰

總務 部長 徐惠性

教學 部長 柳金蓮

社會 弘報 部長 金妙蓮

財務 部長 徐輔光

宗會 議長 金明惠

監察 院長 朴世藏

弘法 教育 院長 金慧旻

서울 教區 宗務 院長 金榮藏

京畿 教區 宗務 院長 朴玉山

忠南 教區 宗務 院長 金炳俊

忠北 教區 宗務 院長 朴金雄

慶北 教區 宗務 院長 徐宗山

釜慶 教區 宗務 院長 署理 金妙蓮

江原 教區 宗務 院長 署理 李法蓮

佛紀 二五四三年 十月 日

### 韓國佛教 法華宗 總務院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35-5 (중앙빌딩 503호)

전화 : 02)745-1590 / 팩스 : 02)742-1590